

# 장 르노디의 도시 집합주거에 관한 디자인 철학과 방법에 대한 연구

- 이브리 쉬르센느 시의 집합주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Jean-Renaudie's Design Philosophy and Method for Urban Housing Project

- Focusing on the City of Ivry-sur-Seine -

배 대 승\*

Bae, Dae-Seung

(인덕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Jean Renaudie was an French architect who designed many urban social housing in France, especially in the city of Ivry-sur-Seine, near Paris, with Renee Gailhoustet, co-responsible as the architect of this city, communist city from long time. He was formed as an architect by the influence of Auguste Perret and Marcel Lods, two french architects, great specialist of the structure of concrete. He formed the Atelier Montrouge with Pierre Riboulet, Gerard Thurnauer, Jean-Louis Verret, and proposed many innovative projects, based on geometrically pure forms and masses. After he joined Renee Gailhoustet, the architect of the City of Ivry-sur-Seine, as a co-responsible for the redevelopment of this ideologically communist city. His urban housing concept approached to take the function as a space to welcome the urban life of the resident, not to offer the physical provision of housing repeating the simple housing unity. He accentuated the social role of Housing project not only as the level of a personal home but also as that of an urbanism. He offered divers choice opportunity to the citizen by the urban functional complex through his efforts to make characteristic complex of urban housing, and by the consequence, the innovative result was done which ameliorated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 This is an exceptional example, not only in France but even in whole over the world. But the maintenance of building against the oldness and the closing shop of inside commercial zone of Jeanne Hachette became a problem, not only that of physical amelioration but also that of spiritual conservation of the works of Jean Renaudie.

주제어 : 도시집합주거, 재개발, 보존, 복합성, 테라스

Keywords: Urban Social Housing, Redevelopment, Conservation, Complexity, Terrace

### 1. 서론

도시 사람들로 하여금 대량 생산된 도시주거에 거주하면서 각자 개성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축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현대 도시의 획일적인 도시집합주거의 양산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주거건축의 디

자인을 통한 질적 향상을 제공하기보다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주거 제품의 수요와 공급 체계에 종속되어 최소한의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그 와중에도 의식 있는 건축가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도시 집합주거 디자인 작업은 꾸준히 백을 이었다. 프랑스의 경우에 195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당시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적 지원 하에 다양한 도시 집합주거 건축이 이루어졌었다. 이 때 완성된 도시 집합주거 설계 사례 가운데에는 일부는 건축가의 책무에 관한 모범적인 메시지

\* Corresponding Author : daeseungbae@yahoo.co.kr

이 논문은 인덕대학 해외연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를 전달하였고 그 내용은 도시 집합주거를 급속도로 보급시킨 한국을 비롯한 많은 신흥 현대 도시의 집합주거 사례에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 가운데 필자는 주거 기능 뿐 만 아니라 위락 기능, 업무 기능, 상업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배치하며 별 모양의 계단식 테라스를 이용하여 개성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선보인 건축가 장 르노디(이하 르노디로 칭함)의 작업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당시 프랑스는 전후 복구와 함께 급격히 증가한 도시 인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르코르부지에가 설계한 마르세이유 유니테 다비따씨옹의 도시주거 개념에 맞춰 대규모 집합주거(Grands Ensembles)를 양산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대규모 도시집합주거는 경제적 사회적 장점과 함께 도시 생활을 위한 서민들의 필수 생활공간이 되었고 신축 집합주거는 대량 공급 목적으로 옆으로 나란히 배열한 판상형 위주의 설계와 내부 생활 공간의 기능적 개선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실용적인 도시집합주거 디자인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 국가의 도시 집합주거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단순하게 설계한 대규모 집합주거는 실내 생활 공간의 편의 개선을 가져오지는 하였으나 거주 주민들의 상호 교류를 권장해야 할 사회적 기능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에 의식있는 건축가들이 행정당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 외부의 공공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시도하였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여전히 규모가 크면서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도시집합주거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빠리 근교 이브리 쉬르 쉐느(Ivry-sur-Seine, 이하 이브리로 명함)시 집합주거를 비롯하여 일련의 흥미로운 도시 집합주거 계획안을 제안하고 실현한 건축가 르노디의 업적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뿐만 아니라 건축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객관적으로도 그의 작품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sup>2)</sup> 건축가 르노디는 매년 단 한명의 건축가를 선정하는 프랑스 건축가 대상

을 1979년에 수상하면서 프랑스 최고 건축가로 인정받았다. 물론 주거건축에 관한 그의 업적은 가장 돋보였으며 그가 설계 완성한 이브리 시의 잔느아세뜨 집합주거는 르코르부지에 이후 1960-7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집합주거 사례로 선정되어 그의 집합주거 설계 작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었다.<sup>3)</sup> 연구자가 프랑스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방문하면서 경험한 많은 프랑스 도시 집합주거 가운데 1981년에 작고한 건축가 장 르노디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중 하나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 대도시 집합주거의 무표정한 외관과 소통을 모르는 주민들의 공동생활 공간 양산에 익숙해진 건축가들과 행정 당국자들이 르노디의 도시 집합주거에 관한 디자인 철학과 방법을 인지한다면 또 다른 도시주거 세계를 간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르노디의 디자인 철학과 방법을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의 도시주거 디자인을 4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건축가 르노디의 작업에 관한 각종 서적과 건축가들의 비평을 중심으로 그의 도시 집합주거 디자인 방법과 그의 대표작인 이브리 쉬르 쉐느 집합주거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적 고찰을 중심으로 당시 신문, 잡지,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이브리 쉬르 쉐느 집합주거가 완성되기까지 과정과 결과를 밝힘으로써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작고한 르노디와 함께 작업한 동료 건축가 르네 가이우스페와의 인터뷰 내용<sup>4)</sup>은 르노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문헌 조사와 더불어 그의 작업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장 르노디의 성장 과정과 작업 배경

건축가 장 르노디는 1925년 프랑스 라메즈(La Meyze)에서 출생하였고 1981년 빠리에서 작고할 때까지 주로 도시 집합주거를 설계하고 실현하였다. 뻬에르 리블레와 함께 창설(1958년)한 아뜰리에 몽후즈(Atelier Montrouge)활동 초기부터 장 르노디는 집합주거 디자인을 위한 반복 시스템 작업이 초래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하학적 원형을 이용한 기본적 형태의 조합을 통하여 작업을 시도하곤 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업 사례가

1) "1945-1975 Une Histoire d'Habitat" 40 Ensembles Patrimoine du XXe siecle, 10-13쪽, Beaux Arts Editions, 2010

2) Jacques Lucan, FRANCE ARCHITECTURE 1965-1988, 59쪽, Electa Moniteur, 1989

3) "프랑스 건축가 200인 대상 앙케이트 결과", AMC 11호, 1986년 4월

4) 르네 가이우스페가 거주하고 있는 이브리 시 리에가 자택에서 두 차례(1999.6.30., 2012.1.10.)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SSN 1588-1142(Print)

<Fig.1>에서 보는 지중해 근방 바캉스 촌 지가로 (Gigaro 1963-64)마을의 개념 설계 스케치이다. 이 그림을 보면 경사진 대지를 따라 도넛 형태의 매스가 중첩되어 점차 구름진 형태를 이루는 개념인데 계단식 건물의 형태를 똑같은 원형으로 반복하여 표준화시키고 넓은 테라스를 확보하는 디자인 의도이다. 이로부터 르노디는 점차 매스의 조합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한다.<sup>5)</sup> 훗날 완성한 이브리 시의 잔느 아세뜨 건물의 계단식 테라스 건축의 아이디어가 태동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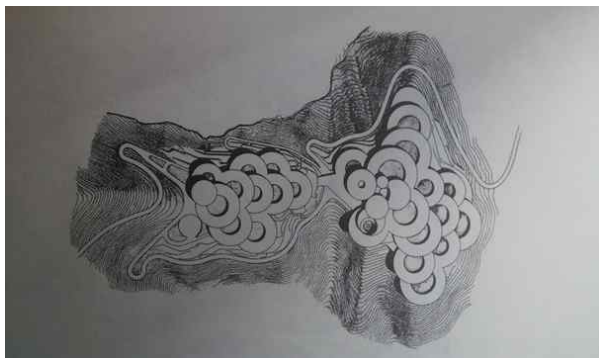


Fig.1 Gigaro village concept, 1963

1967-68년에 연구한 루앙 시 근교에 있는 보드레이유 신도시 계획안(Fig.5와 3-1장 참조)에서 르노디는 과감한 입체 도시 계획안을 구상하고 제안하여 큰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연구 경력 덕분에 1972년부터 빠리 근교 이브리 쉬르 쉐느(Ivry-sur-Seine)시에서 르네 가이우스페와 함께 이브리 시 재개발 계획을 위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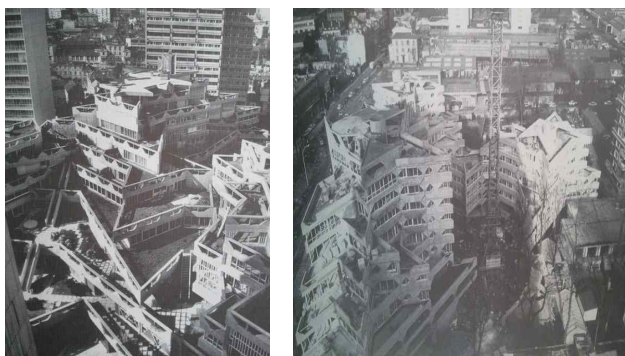


Fig.2 Jeanne Hachette(left),Casanova(right), Ivry-sur-Seine

그의 대표작 잔느 아세뜨(Fig.2 왼쪽)와 카사노바(Fig.2 오른쪽)는 이브리 쉬르 쉐느 시의 중심지를 개조하면서 설계한 별 모양의 테라스를 갖는 집합주거인데 196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에 의하여 기존의 단지를 허

5) Pascale Buffard, La logique de la complexite, 27~31쪽, Sodedat93/IFA, Edizione Carte Segrete, 1992

물고 그 자리에 들어선 독특한 형태의 건물이다. 왼쪽 잔느 아세뜨 건물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20세기 건축물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Fig.2> 왼쪽 사진의 잔느 아세뜨 집합주거는 뒤편에 보이는 타워식 도시주거 라스파이오(Raspail)<sup>6)</sup>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잔느아세뜨 집합주거는 계단형 테라스가 가장 인상적이지만 실내 공간의 혁신적 디자인과 넓은 테라스 그리고 주거 외부 공간의 도시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그의 도시주거는 모든 주거 단위 하나 하나가 같지 않으면서 무수히 많은 테라스가 중첩되고 도시 기능을 위한 복합 시설이 내포되어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별 모양의 형태가 외관상 특징이다. 르노디는 1974년부터 1981년 작고할 때까지 지보르(Givors) 시 집합주거 작업도 수행하였다. <Fig.3>의 지보르 시 집합주거도 이브리 시 집합주거와 같은 유형의 별 모양 테라스를 이용한 도시 개조작업이다. 점차 뒤로 물러나면서 연속된 테라스 형태들이 45°로 된 뾰족한 모서리를 형성하는데 르노디는 이곳을 배의 머리부분 같이 허공으로 튀어 오르는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별 모양의 뾰족한 테라스는 건축가 르노디의 일평생 작업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Fig.3 Housing, Givor, 1974-1981

### 2-1. 건축가 장 르노디의 교육적 배경

르노디는 르네 가이우스페와 보자르 건축학교 동창으로 설계 교수인 건축가 마르셀 룯<sup>7)</sup> 스튜디오에서 배웠

6) 르네 가이우스페가 1968년에 이브리 시 재개발 계획 일환으로 설계한 17층 타워식 주거로 두 개 주거블록이 샌드위치처럼 배치되어 아래층 가운데에 중정과 문화, 상업시설을 배치하였다.

7) 건축가 마르셀 룯(Marcel Lods)교수는 기술에 열정을 가진 건축가이며 모 보발(Meaux-Beauval)의 도시화 우선지구 8,300가구를 설

데 오귀스트 페레 교수를 계승한 뭇 교수는 비올레 르 뒤 과 오귀스트 페레의 건축구조에 근거한 합리주의 건축의 영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다고 한다.<sup>8)</sup> 르노디는 뭇 교수의 사각형 체계를 중시하는 합리적 설계 교육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디자인에서 당시 프랑스 최고의 전문가였던 오귀스트 페레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아 그의 사무실에서도 작업을 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철근 콘크리트 재료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르노디가 개인적으로 선호한 건축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한스 샤론이었다고 르네 가이우스페는 증언하였다. 미국 프레이리 지방에 실현한 라이트의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건축과 독일 베를린의 한스 샤론이 설계한 로미오와 줄리엣 집합주거의 뾰족한 테라스는 르노디의 집합주거 디자인과 비교해 볼 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참조한 수준이고 르노디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

보자르 건축학교를 졸업한 후 르노디는 건축 설계에서 당시에는 상당히 무시되었던 분야인 도시 디자인에 역점을 두어 건축과 도시를 함께 다루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CIAM 후기 회의와 Team X 모임에 참석했던 몇몇 그들 세대의 건축가들은 기계적인 도시와 건축 공간 생산에 반대하면서 도시 공공 공간 혹은 거주행위를 똑같이 규정할 수 있는 인류학적 개념의 주거, 즉 인간성 회복과 인간 중심의 공간을 선호하는 주거 공급을 위해 생산 위주의 접근 방식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sup>9)</sup> 르코르부지에는 아예 학교 교육을 거부하며 반 아카데미 입장을 표명했는데 르노디는 건축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학교 건축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르코르부지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르노디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념적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훈련을 거부하면서 정직한 구조를 설계의 기반으로 하었다고 한다.

당시 프랑스 보자르 미술대학의 건축 교육은 오랜 미술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르노디의 독창성 개발에 큰 도움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

계하면서 당시의 수준으로 가장 앞서고 실험적인 기성화(Prefabrication)작업을 수행하였다. Batir 157호, 1967년5월호 참조

8)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 교수에 이어 마르셀 뭇 교수(Marcel Lods), 에르망 교수(Ermand, 문화적 지식이 많은 건축가로 형태에 관심이 많았음), 트레디니 교수(Tredinie, 기하학 작도에 관심이 많았던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아틀리에를 이끌었다. Renee Gailhoustet와 필자의 인터뷰 내용, 1999.06.30

9) 르노디와 가이우스페는 Team 10의 이념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추구하였으나 이 운동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르네 가이우스페와의 인터뷰 내용, 1999.6.30

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더욱 키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2-2. 건축가 장 르노디의 실무적 배경

1968년 혁명의 영향으로 당시 프랑스에서 좌파 개념이 크게 유행할 때 르노디는 좌파적인 정치 개념을 건축 개념으로 실현시키고자 하였다.<sup>10)</sup> 그가 활동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좌파적 성격의 도시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서민층을 위한 임대용 도시 집합주거를 많이 실현하였다. 1958년에 구성된 아틀리에 몽후즈<sup>11)</sup>와 1959년에 창설된 AUA 그룹<sup>12)</sup>은 매우 이데올로기 적일 뿐 아니라 호전적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은 주거의 대량생산을 공략한 저급한 상업주의에 대한 함축된 비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연히 그들의 작업은 좌파 정치적 성향의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르노디도 좌파 도시인 이브리 시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브리 시는 1920년대에 빠리 광역시에 포함되었고 전통적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대거 거주하던 곳이었다. 정부의 지원 아래 대규모 주거정책과 도로, 건물 정책 지침이 반영되었지만 중심지의 변영도 오지 않고 외곽 지역의 개발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 계획 당시인 1970년대에는 부분적인 작업 수준에 머물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도시 중심지는 19세기 도시화 작업 이후 변화는 다양했지만 질서는 별로 없는 상태이었고 20세기 들어 현대화 작업의 유토피아적 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었다.<sup>13)</sup>

유토피아적인 계획의 대표적인 작업이 장 르노디와 르네 가이우스페가 디자인한 이브리 시 중심지 재개발이며 광역 빠리에서 실행된 혁신적인 도시 재개발 계획 중의 하나였다. 장 르노디는 이브리 시의 대표 건축가로 1969년에 임명된 건축가 르네 가이우스페의 소개와 발주청인 서민주거 사무국(Office d'HLM)의 대표인 레이몽 랄록

10) 프랑스는 모든 국민과 건축가들이 뚜렷한 정치 성향을 표명하는 추세이나 정치가들의 후원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정당 활동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르노디의 정당활동에 관한 기록도 없다.

11) 아틀리에 몽후즈(Atelier Montrouge)의 구성원은 장 르노디(Jean Renaudie), 삐에르 리볼레(Pierre Riboulet), 제라르 터너(Gerard Thurnauer), 장 루이 베레(Jean-Louis Verret) 모두 4명이다.

12) 그룹 AUA 창설된 후에 Paul Chemetov, Henri Ciriani가 가담하였다.

13) 르네 가이우스페는 이브리 시에서 선보인 Jeanne Hachette, Casanova, Liega, Mara 등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넓은 테라스를 소유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동시에 갖는 이상적인 주민공동체를 형성한 사례를 유토피아적이라 칭하였다.

ISSN 1588-1142(Print)  
(Raymond Laluck)여사의 적극적 지원<sup>14)</sup>으로 이듬해

1970년부터 이브리 시의 중심지 개발 계획을 위한 공동 책임자 역할을 맡으며 1981년 사망할 때까지 작업을 하였다. 르노디가 유토피아적 계획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건축주의 밀접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르노디는 이브리 시 재개발 공동 책임을 맡아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르네 가이우스떼와는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다.<sup>15)</sup> <Fig.4>의 왼쪽은 이브리 시 중심 재개발 사업으로 르노디가 설계한 별모양의 잔느 아세뜨 테라스 주거건축(1975)이며 오른쪽은 르네 가이우스떼가 설계한 다각형 모양의 리에가 테라스 건축(1981)이다. 둘 다 공통적으로 도시 생활을 위한 다양한 도시 기능을 모아 놓고 집합주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마당을 소유하여 이웃 간에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테라스 공간을 배치하여 도시 생활 측면과 개인 주거 생활 측면을 모두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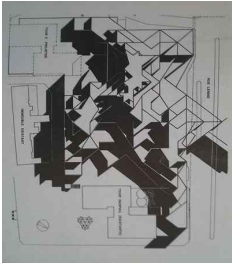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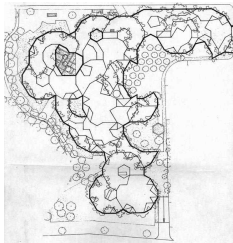
Project	Jeanne Hachette, 1975	Le Liega, 1981
Architect	Jean RENAUDIE	Renee GAILHOUSTET
건물배치 체계 Master Plan System		
	45° 체계	자유직선+곡선 체계
주거유형 분포	51가구	128가구
Housing Typology	T1:1개 T2:4개 T3:14개 T4:19개 T5:13개	T1:16개 T2:34개 T3:44개 T4:22개 T5:12개

Fig.4 Jeanne Hachette(left) Le Liegat(right) Ivry-sur-Seine

연구자가 위 두 개의 주거건축의 내외부를 직접 방문 답사해 본 결과 주거 유형 분포는 <Fig.4>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주거 평면과 과감한 테라스 배치는 둘 다

14) 발드 마른느(Val de Marne) 서민주거 사무국장인 레이몽 랄룩 여사는 드물게 건축에 관심을 갖고 시 당국이 무관심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상 프로모터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5) 르노디는 Casanova(1970~72), Jeanne Hachette(1970~75), La Cite du Parc(1978~83) 집합주거를 설계하였고 르네 가이우스떼는 Liéga(1981), Marat(1981) 집합주거를 설계하였다.

흥미로움을 유발시켜 준다. 하지만 두 주거의 차이점은 왼쪽의 잔느 아세뜨 주거는 복합적 기능이 더욱 많이 부여되어 있고 사무소를 비롯한 업무시설과 상업 시설의 비중이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기능이 있어 초창기에는 영화관(현재는 문화 전시장)도 운영하는 등 조그만 도시같은 복합 기능을 가졌었다. 약 6년 후에 르네가이우스떼가 완성한 리에가 주거는 잔느 아세뜨의 영향을 받아 같은 방식의 테라스를 이용한 디자인을 시도하였는데 이전에 르네가이우스떼의 도시 주거(2장 Fig.2, 주7 참조)는 박스형 이었다. 즉 르노디의 계단형 테라스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인데 대부분 영구 임대주택이고 상업시설 비중이 적다. 두 건물 모두 이브리 시의 정책적 지원<sup>16)</sup> 덕분에 주거 부분은 원형대로 형태를 잘 유지하며 주민들에게 최고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르노디가 나중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테라스를 이용한 복합적 주거 설계 방법이 르네가이우스떼에게 전파되어 이브리 시는 현대식 테라스 형태 주거건축의 전시장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많은 공장의 이전, 대형 슈퍼의 등장으로 인한 상권의 변화 등으로 이브리 시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상업시설이 많이 배치된 르노디의 잔느아세뜨 건물이 더 큰 타격을 받아 빈 점포와 문닫은 영화관의 발길 끊어진 공간 방치, 그리고 건물의 자연 노화 가속화 등 더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sup>17)</sup> 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잔느아세뜨의 재건축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문화재로 등급이 정해진 르노디 건축물의 원형과 원래의 기능이 변형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 르노디의 잔느아세뜨 건물의 상업 공간 부분(Fig.7 레벨39.3m 참조)의 재건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시 당국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현실<sup>18)</sup>은 르노디의 건

16) 영구임대정책 유지를 위한 공용공간 관리 비용을 이브리 시에서 부담하며 빠리시 평균보다 60% 저렴한 월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양은 하지 않고 있다. 르네가이우스떼 자신도 현재 오른쪽의 리에가 건물에서 살고 있으며 기존의 입주자들이 워낙 좋은 조건이라 떠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입주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17) 잔느아세뜨는 지하철 역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도 소규모 상업의 영업 부진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18) 영구 임대주택인 잔느 아세뜨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가 부분의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대책에 크게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었기에 2001년 당시 재건축사업 계획은 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장 르노디와 르네 가이우스떼의 추억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건축가 그룹과 주민들은 문화재의 적절한 유지 보존을 위하여 르네 가이우스떼의 작업 참여와 함께 시 당국이 지정한 건축가들의 사업 참여에 따른 원작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축 작품을 완공 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장 르노디의 건축 철학과 도시주거

장 르노디의 집합주거 작품은 먼저 주거 내외부 공간의 다양성과 형태적 개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아파트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형태의 도시주거에 식상한 사람에게 과격적인 별 모양의 발코니 형태 디자인은 분명 흥미를 유발시켜준다. 하지만 르노디의 깊은 건축 철학을 이해하여야만 왜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건축 개념과 도시주거에 관련된 개념 분석을 하고자 한다. 순서는 스케일에 따라 그의 도시 개념부터 시작하여 건축 개념 그리고 형태 디자인 개념 등으로 점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1. 도시에 대한 개념

도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건축가의 작품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 중 하나이다. 장르노디에 관한 문헌 자료에 의하면 그는 도시 옹호론자로서 도시가 지구상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과 물적 교류로 인하여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단지 도시가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며 그 이유는 도시와 도시의 형태에는 많은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르노디는 “도시에는 단순한 물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 어떤 물체든지 그럴 것이다. 모든 요소는 커다란 그룹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의미를 갖게 된다”<sup>19)</sup>라고 말했는데 르노디에게는 건축가의 임무는 도시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다른 요소와 연관된 복합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르노디는 CIAM 건축가들처럼 공원이나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단일 기능의 고층 건물을 대량 배치하는 등 역사적 도시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르노디는 아테네 현장의 조닝(Zoning)원칙을 비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원칙 자체가 19세기로부터 전해진 개발 유형이라고 간주하면서 CIAM건축가들, 특히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뻬에르 고스나 시장은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였고 후임 시장들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물의 노화와 상가 침체에 따른 변화에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르네 가이우스페의 편지 내용, 2002.4.11

19) 르노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하여”AA (L'Architecture d'Aujourd'hui) 46호, 30쪽, 1969년10월~11월

르꼬르뷰지에 의 이론으로 간주되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였다. 몇몇 건축가들의 이론으로 보기보다는 지난 19세기부터 전해진 개발 유형이라고 간주하였다.<sup>20)</sup>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오늘날까지 산업 개발의 결과물인 도시는 밀도가 증가하고 건축이나 도시의 개발에 따라 재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빈 공간을 건물로 채우는 시스템의 창설 결과를 가져왔다고 르노디는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래한 부정적 결과로 도시계획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퇴보된 것이고 사람들이 도시가 개발될수록 오히려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또 도시의 복잡한 기능들이 서로 얽혀 뒤범벅이 된 탓으로 건축이 공간을 창조한다는 독자적 성격을 궁극적으로 상실하였으며 단순한 건설 행위에 자리를 내준 채 평이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르노디는 기술 패권주의로 인하여 건축이 기술에 의한 건설행위에 종속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도시를 구성하는데 거주하는 행위의 역할을 재건하기 위해”<sup>22)</sup>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도시 중심지 계획을 위한 CIAM의 획일적이고 진부한 개념을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주민들이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주거 공간을 받아들여 그 공간의 생성 목적을 확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르노디는 도시를 정의하기를 “자체 요소들의 분해와 분리를 방지하는 복합구조로서 조직된 결합체계”라고 규정하였는데 프랑스 생물학자 프랑수와 자콥(Francois Jacob)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sup>23)</sup> 르노디가 독자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와 구별되는 추상적 구조로서 구성 요소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수용하려는 것<sup>24)</sup>으로서 아테네 현장에서 제안한 용도의 단순 배치와는 다른 것이다. 그가 아틀리에 몽후즈에서 작업시 제안한 루앙(Rouen) 시 근교 보드레이유 신도시 계획안(Fig.5 보드레이유 계획 모형)은 도시 구성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연계시키는 개념이었는데 아쉽게도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Fig.5> 사진에서 보듯이 이 계획안은 경사진 대지에 피라미드 모양

20) Jean Renaudie, La logique de la complexite, 26쪽, IFA, Edizione Carte Segrete, 1992

21) 르노디, 뽕뽕두 센터에서의 강연 내용, 1978.10.25

22) CIAM건축에서 무시되었던 도시 주거에 사는 사람의 행위를 다시 살려 도시주거 공간의 인간성 회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23) 르노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하여”AA (L'Architecture d'Aujourd'hui) 46호, 32쪽, 1969년10월~11월

24) 르노디는 물리적(기계적)인 도시구조 방식과 달리 생물체와 같은 추상적 구조 방식 추구를 통하여 주민들간의 관계, 공공공간과 개인공간의 관계를 수용하려하였다는 의미이다.

ISSN 1588-1142(Print)

의 주거건물을 불규칙적인 격자 모양으로 배치하고 주거가 다양한 높이로 교차되며 주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을 넓고 다양하게 꾸미려고 하였다.<sup>25)</sup> 이 계획안은 피라미드형 매스가 제공하는 테라스와 중정의 배치가 마치 르네상스 건축의 비례를 추구하고 바로크 건축의 풍요로운 외부 공간을 서로 조화시켜 놓은 듯한 느낌을 주며 실현되지 못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도시주거 디자인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었다.<sup>26)</sup> 그 배경에는 르노디의 도시에 관한 배려가 큰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5 Model of the concept for the Vaudreuil New City

### 3-2. 도시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개념

도시의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는 것과 개발하는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명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주제에 대한 르노디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의 도시주거 작품에 어떠한 흔적으로 보이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 (1) 빠리 중심부 썩 땅뚜안느 구역(Faubourg Saint Antoine)<sup>27)</sup>의 교훈

르노디는 도시계획 결정이 과거에는 반드시 주민들을

25) 보드레이유 신도시 계획안이 발표된 시기는 르포르부지와 아테네 현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하던 건축계 분위기 탓에 더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또한 당시 에브리(EVRY)시에 앙드로&파라(Andraut & Parat)가 완성한 피라미드 주거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시주거인데 이와 비교를 하면 피라미드의 안쪽부분은 완전히 막혀있어 그 내부에 접근할 수도 없고 창고 비슷한 용도일 뿐 아무런 기능도 없어서 피라미드의 볼륨은 결국 외부의 윤곽일 뿐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무시하는 결과인 반면에 보드레이유 계획안의 경우는 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충실히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보행자나 도시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간과하지 않았고 길과의 연관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르네 가우스페와의 인터뷰 내용(1999.06.30)

26) 비평가 뿔 비릴리오(Paul Virilio)는 보드레이유 Vaudreuil 계획안을 르네상스 이후 가장 두드러진 안이라고 극찬하였다. 르네가우스페도 르노디의 계획안 중에 가장 뛰어난 계획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보드레이유 계획안의 의미에 대한 연구 분석이 더 자세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상기 인터뷰 내용)

27) 빠리 바스티유 광장과 나쑈용 광장 사이의 도로 rue faubourg saint-Antoine. 빠리 시 형성 당시부터 동쪽 진입로 역할을 했고 현재 빠리 11구와 12구 경계선으로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있으며 각 건축물의 형태도 중세시기 입면부터 현대까지 다양하게 공존하여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리이다.

http://dx.doi.org/10.7738/JAH.2012.21.4.093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과는 전혀 달리 도시가 구성되곤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빠리의 썩 땅뚜안느 구역(Faubourg Saint Antoine)이 도시계획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썩 땅뚜안느 지역은 빠리 동쪽에 위치한 도시 모(Meaux)와 연결되는 도로축 상에 위치하여 중세 시절부터 물자 교류의 축이었던 곳이다. 오스망의 도시 개발도 이 곳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곡선진 도로 형태가 유지된 채 오랜 역사의 궤적이 축적될 수 있었다. 빠리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 주민들에 의해서 또 당대의 경제적 역할에 따라서 도시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썩 땅뚜안느 구역에 주어진 것이며 한 장의 도면 위에 표현된 도시계획 처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해보면 항상 같은 선입견을 제공하여 건축을 단순화하는 것에 대하여 르노디는 주의를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 반사적인 안을 채택하는 것<sup>28)</sup>은 건축에는 적용 될 수 없다고 르노디는 주장한다. 그래서 르노디의 도시주거에서는 기존의 맥락을 존중하려 노력하였고 획일적인 형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 (2) 라 데팡스와 뽕삐두 센터의 교훈

르노디는 도시의 보존과 개발 문제에 대하여 빠리의 예를 들면서 일단 빠리 시가 물리적 구성 측면에서는 절대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있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1960-70년대 빠리 시의 정책을 평가하였다. 당시 가장 큰 화두였던 라 데팡스와 뽕삐두 센터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빠리에 적용되는 정책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유럽의 수도인 라 데팡스를 만들기 위하여 그 지역의 활동적인 주민들을 쫓아내고 도시 중심 개발을 위하여 주민들을 외곽 변두리로 몰아버리는 정책이 빠리를 주도해 가고 있다”<sup>29)</sup>는 사실을 문제로 삼았다. 르노디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은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빠리의 물리적 구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해결책들이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고 빠리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다른 것을 세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르노디는 도식적인 방법으로 뽕삐두 센터와 같은 문화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역사가 중첩되어 형성된 빠

28) 르노디는 오스망 건축의 획일적인 입면처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무조건 통일된 계획안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29) 르노디, 뽕삐두 센터에서의 강연 내용, 1978.10.25

리를 위해서 모든 문화를 놀랍고도 교묘하게 하나의 도구에 집중시키는 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르노디는 최고 권력의 결정에 의한 건축 문화의 집중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1970년대 당시에 라 데팡스의 신도시 건축과 뽕삐두 센터의 강구조 건축과 원색 노출 입면은 기존 도시건축의 역사적 맥락을 단절시키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건축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신축 건물의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르노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건축 성향이면서도 도시의 역사성에 관해서 보수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건축과 도시계획에 주민의 참여에 대한 의견  
건축과 도시계획은 전문가들만의 작업으로는 주민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르노디는 이 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르노디는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도시계획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르노디에게 있어서 도시계획은 건축을 말하고 서로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시야를 좀 더 늘려보면 도시계획과 건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바로 건축인 것이며 달리 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끝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속에 넣는 내용과 건축 속에 넣는 내용에 따라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르노디는 늘 건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르노디의 건축 작업 과정을 보면 도시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르노디는 단순하게라도 주민들의 선택이 반영되어 있는 더욱 복잡한 구성 방식<sup>30)</sup>을 건축에 적용하였다. 르노디에게는 사람들의 끝없이 반복되는 사고의 진보 혹은 사람들이 최소한 사고 진보의 가능성을 갖는다면 사람들 간의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최종적으로는 사회생활의 전개를 위해서 복잡한 구성 방식은 결과적으로 유리한 방법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던 것이다. 르노디는 건축이 제안한 물리적 구성은 사회의 기본 요건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반면에 건축이 제안한 방법이 무관하다거나 영향력이 없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은 항상 사회적

실제 업무에 영향을 끼쳤고 특정한 사회적 실제 업무를 장려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영향력은 갖게 된다는 것을 르노디는 주장하였다.<sup>31)</sup>

르노디는 건축의 새로운 경향이나 새로운 사조는 정복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투쟁 가운데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필수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다른 경향과 사조에 대항하여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경향 속에서 새로운 건축 해결 방법을 향하여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기존의 이미 자리잡은 다른 실제 업무 작업 위에 덧붙여서 끊임없이 의무적으로 진행시키는 작업 속에서만 해결책을 찾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야만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르노디는 이것을 곡선진 막대기에 비유하고 있다. 즉 휘어진 막대를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세게 꺾어야 하는데 보통 이것은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관성의 법칙에 대항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건축은 건축 외적인 무수히 많은 문제와 자료 속에서 이루어지며 건축가는 이것을 감내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회피하려는 것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연구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업하려는 자료와 대지를 반드시 직접 접촉하여 측정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고 르노디는 강조한다. 르노디에 의하면 발주자는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내포 되어있는 특정한 방식의 질문을 하는데 공공 사업 발주자가 그렇고 뽕삐두 센터가 그렇듯이 이미 질문 속에 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의 답은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남는 것은 건축가의 스타일을 발휘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르노디는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의 답으로서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도시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며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가 물질의 물리적 형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도시계획 행위를 절대 따로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르노디는 주장하였다.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 정치적 환경은 기본적인 것이고 주민들의 일상에 관한 모든 사항들도 도시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라 주장하였다.

르노디의 건축과 도시계획에 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건축가의 전문적 작업이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주민들의 참여를

30) 이브리 시 잔느 아세뜨 집합주거는 주거기능 뿐 아니라 사무실, 영화관, 상점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하여 집합주거 내부가 작은 도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31) Jean Renaudie, La logique de la complexite, 19~22쪽, IFA, Edizione Carte Segrete, 1992



ISSN 1588-1142(Print)

유치 활용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르노디의 도시 집합주거 디자인은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3-4. 길에 대한 개념

길의 의미는 단순한 통과 목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길과 도시주거의 관계는 주민들 생활공간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르노디의 길에 대한 개념과 도시주거 디자인의 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인가를 분석해 본다.

<Fig.6> 왼쪽 그림은 르노디의 길의 개념 스케치인데 달동네 계단 골목길 이미지와 비슷한 친근감을 준다. 그의 개념이 실제로 완성된 <Fig.6> 오른쪽 그림의 동네 계단길은 주민들에게 소극장 같은 공간을 제공해준다. 잔느 아세뜨 주거를 비롯하여 실제로 적용된 계단 길은 르노디의 의도대로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이 친밀하게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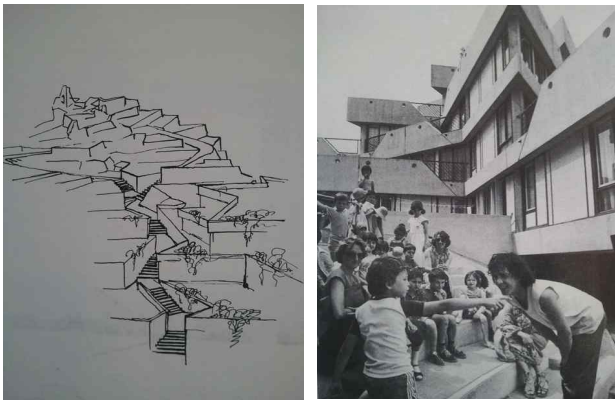


Fig.6 Street sketch(left) and Jeanne Hachette exterior space

더 나아가 르노디는 길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길을 없애버리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길은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사회적 공공장소이며 문화 행사가 열리기도 하여 사람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해 주거나 다양한 도시 생활을 제공하는 기분 좋은 공간으로 인식되는 등 측량하기 어려운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르노디는 기존의 길을 무시하는 도시 재개발 방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르노디는 길을 없애는 것은 자동차 통행에 따른 공해 유발 방지, 소음 발생 차단,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억지 방편일 뿐이라 폄하한다. 단, 이 방법을 통하여 건축이 새로운 공공 공간을 창출해서 길을 대체할 수 있을 때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과연 이 공간이 길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프랑스의 1960년대 재개발 방식에서 선보였던 방식은 길을 없애 버리고 생긴 녹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서 녹지가 길을 대체하는 공공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전혀 옳지 않은 처사임을 르노디는 강조하였다. 르노디는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결핍된 해결방법이었고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 르노디는 배합 방식에 많은 신뢰를 주었다. 즉 과거의 길을 없애고 새롭게 생긴 공간에 새롭게 복합 기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새로운 공공 공간 속에 비중을 둬서 서로 다른 요소들의 배합을 권장하고 가능하게 하여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도시의 일부분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었다.<sup>32)</sup>

르노디가 잔느아세뜨 계획을 위하여 기존의 레닌 길(Rue Lenine)을 없애버렸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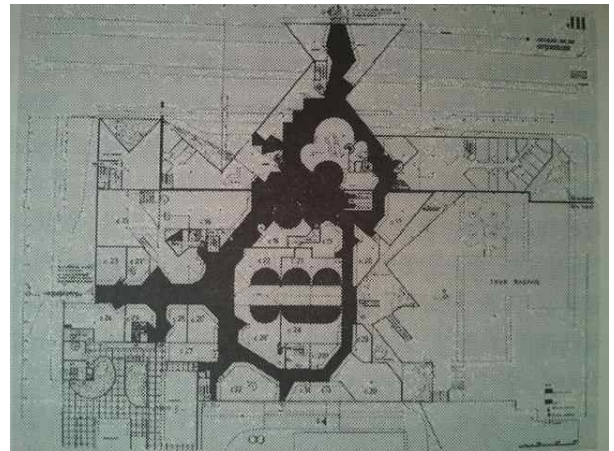


Fig.7 Jeanne Hachette Plan, Level 39.3m



Fig.8 Street at Jeanne Hachette, Ivry-sur-Seine

<Fig.7>의 잔느아세뜨 레벨 39.3m 평면상에서 보듯이 과거의 길의 흔적을 남겨놓아 주민들로 하여금 과거의 길을 뇌 속에서 지우더라도 새로운 공공공간의 이미지가

32) Jean Renaudie, La logique de la complexite, 26쪽, IFA, Edizione Carte Segrete, 1992

그 자리를 대체하도록 계획하여(짙은 색 부분) 길의 역사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하는 현실을 새롭게 복합기능을 배치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르노디가 길에 대한 집념을 갖고서 기존 길의 역사적 흔적을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길에 대한 르노디의 집념은 <Fig.8>에서 보듯이 잔디 아세프의 계단식 테라스 사이를 가로지르는 계단길이 주민들의 사유공간인 테라스 사이를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한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다. 테라스는 사유공간인 곳이 대부분이지만 계단길 주변 테라스는 공용공간으로 활용된다. 입체적인 계단 테라스 공용공간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르노디는 배려하였고 그의 작업은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었다.<sup>33)</sup> 르노디의 길에 대한 개념이 도시주거 디자인에 성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받은 셈이다.

### 3-5. 주거의 평면에 대한 개념

르코르뷔지에의 유니테 다비따싸옹과 대규모 집합주거(Grands Ensembles)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도시 주거는 지나치게 기계적인 산술공간이 되어버렸다. 가족 수가 한명씩 늘 때마다 방 한 칸을 더해가는 방식은 실용적이긴 하나 획일적인 평면에 의존하여 단조로운 도시주거 양산을 위한 면죄부를 부여해 준 셈이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방식이 실용성과 경제성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도시주거의 다양한 기능을 반영한 르노디의 평면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지 분석해 본다.

일단 르노디는 도시 속의 주거를 도시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본다. 또한 단순한 산술 적용에 의거하여 집합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물질주의적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주민 숫자에 따라 방4개 짜리 아파트 몇 개, 방3개 짜리 몇 개를 배치하고 코어 주변에 몇 개의 주거를 마련하면 길이가 확정되는 등 기계적 반복 방식에 의하여 평면을 계획하게 되고, 이어서 건물의 양식적 형태적 효과, 입면의 장식적 효과를 통하여 겉모양을 가꾸려는 진부한 방식에 열중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르노디는 길에 대한 스케치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을에 대해서도 감상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르노디는 집을 이야기할 때 단지 마을 속에 있는 가정(Family)이라는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혈연관계는 없지만 함께 일하는 넓은 의미의 가정을 의미하곤 했다. 그

33) 이 건물이 완공될 당시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의 여파로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공간을 선동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였기에 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르네 가이우스페와의 인터뷰 내용)

래서 그는 집합 주거의 외부 공간에서 이웃 주민들 간의 자연스런 교류가 가능하여 서로 눈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계단식 테라스 배치 방식으로 설계하였던 것이다. 그는 건축가로서 이상적 세계를 꿈꾸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 세대 평면이 두 개 혹은 세 개 층의 복층으로 구성되어 세대마다 독특한 테라스 공간을 확보하도록 집들을 배합한 결과 기분 좋고 흥미 있고 호감이 가는 마을처럼 전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각개 주거가 전체 구성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론적인 시각이며 현실적인 역할을 입증하기 어렵다. 르노디의 연구 개념을 보면 주거건물의 형태는 주거 단위 사이의 배합에서 유래되며 주거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항상 옆의 주거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병치가 아니고 우리가 생산하고 병치시키거나 병치될 수 있는 주거 평면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은 연구된 전체 구성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주거들 중의 주거 자신에 대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sup>34)</sup> 이러한 전체 구성 방식은 주거 내부 구성에 영향을 준다. 르노디의 연구와 설계 작업 방법 수준에서 판단해 볼 때 각각의 주거는 전체를 구성하는 함수적인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르노디에게는 설계 단계에서 한 두 가구, 혹은 열 가구를 추가할 방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몇 가구의 주거가 모자란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르노디에게 주거의 역할은 사람들 서로를 비늘 구조처럼 배치하는 것이다.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설계 방식이 도시의 나머지 부분의 환경에 따라 설계되거나 구성되었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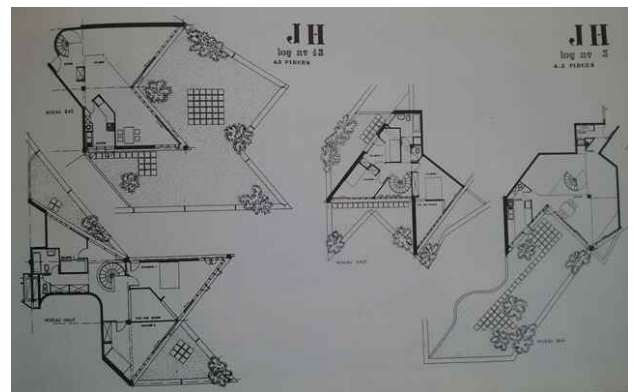


Fig.9 One of the Flat plan at Jeanne Hachette

34) 전체 형태를 구성하는 각개 주거가 서로 함수관계에 있으며 다른 주거들(y)이 주거(x)가 변할 때 함께 변하는  $y=f(x)$ 의 함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35) Jean Renaudie, La logique de la complexite, 30쪽, IFA, Edizione Carte Segrete, 1992



ISSN 1588-1142(Print)

<Fig.9>의 이브리 시의 잔느아세뜨 집합주거의 평면은 매우 독특하다. 직각 체계가 아니고 예각 체계이며 가끔 기둥이 방 한복판에 배치되어 있고 복층형 평면을 연결하는 실내 계단이 있다. 넓은 테라스가 집집마다 있는데 무엇보다 똑같은 평면을 가진 세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평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평면을 반복하거나 쌓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르노디는 전체의 구성 속에서 개개의 주거를 인식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신뢰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당시 기존의 평면은 낮 과 밤에 이용하는 공간, 물을 이용하거나 안하는 공간 등의 이분법적 방식과 현관문 근처에 부엌 배치, 식당, 주방, 거실(DKL) 동선 등 공식화된 평면 유형에 따르는 경향이었지만 르노디는 이러한 진부한 방식을 타파하였다. 대신에 가족들의 공용 공간인 거실, 현관, 테라스는 크게 설계하고 각 방은 작게 설계하였다.<sup>36)</sup>

르노디의 이브리 집합주거 완성 이후 이브리 시는 이 건물 주거 단위별 임대 면적기준을 기존의 방 몇 개, 몇 m<sup>2</sup> 라는 기존 방식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만 했다고 한다.<sup>37)</sup> 르노디가 설계한 집합주거 세대 평면은 모든 세대가 다른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층 3개층까지 사용하거나 2개층을 사용하는 평면이 대부분이다. 그 이전에 어떠한 건축가도 실행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현대 도시주거건축 역사에 남는 걸작이라 판단된다. 반면 입주 초창기에 일부 주민들은 익숙하지 않은 45°예각 실내공간과 거실 한복판에 노출된 기둥, 그리고 일부 침실 공간에 문이 설치가 안 된 실내계획에 대한 불평을 하기도 했으나 생활 가구, 화분 등을 이용한 공간 배치를 통하여 점차 익숙해져갔다.<sup>38)</sup>

<Fig.10>의 잔느 아세뜨 집합주거 사진에서 보이듯이 별 모양의 테라스가 윗 층으로 갈수록 점차 뒤로 물러나면서 모든 세대가 다른 형태의 테라스와 평면을 갖고 있다. 공동주택이면서도 집집마다 50m<sup>2</sup>까지 이르는 테라스 마당을 소유하고 있으며 약 40cm의 성토층 위에는 잔디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을 수 있어 약 7m 이상 자라 열매를 맺기도 하며 뒷집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sup>39)</sup> 일반적인 도시 집합주거는 내부 혹은 작은

balconie에 화분을 배치하여 관상용으로 키우며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는 정도인 반면 르노디의 평면 개념으로 녹지가 우거진 넓은 마당을 선물받게 된 주민들은 자신의 집합주거 테라스에서 자라는 큰 나무에 매달린 과실을 바라보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Fig.10 Flat terrace of Jeanne Hachette

도시 집합주거에 살면서 전원 단독주택에서 마당을 소유하고 사는 기쁨을 르노디는 모든 주민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그 답례로 작고한 르노디를 추모하는 전시회 행사 시 “르노디가 서민주거에 선물한 품위있는 편지“<sup>40)</sup>가 전달되었다.

### 3-6. 형태의 독창성과 복합성에 대한 개념

건축가들은 나름대로 건축철학을 바탕으로 독창적 형태를 만들려는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시 집합주거에서 르노디 만큼 독창적인 형태의 집합주거를 복합적 성격을 부여하면서 완성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가 뛰어난 결과물을 완성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도시, 형태, 주거를 연관시키는 개념

르노디는 건축과 도시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이야기 하면서 세 가지 주제, 즉 도시, 형태, 주거를 서로 연관시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도시 주거형태에서 어

36) Monique ELEB, “VU DE L'INTERIEUR 1945-2010”, Archibook+Sautereau Editeur, 2010, 138~139쪽

37) 건축가 르네가이우스페와의 인터뷰(2012.1.10.)시 증언

38) Françoise Lugassy가 PLAN CONSTRUCTION사업으로 실행한 주민 양케이트 조사 결과, “VU DE L'INTERIEUR 1945~2010”, Archibook+Sautereau Editeur, 2010, 139쪽

39) 다른 지방도시(Aubervillier 와 Malardrie)에 완성한 르네가이우스페의 테라스 형 주거건축물은 나무크기로 인해 아래 위층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관리 지침을 정해놓아 1m 높이 이상 화초는 재배 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브리 시의 경우는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다. 르네가이우스페와의 인터뷰(1999.6.30)

40) “르노디가 서민주거에 전한 품위있는 편지“ Sylvie STEINBACH, “Renaudie a donne des lettres de noblesse au logement social“ L'Humanite, 1993.2.10

떠한 형태이든지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건축가들에게 형태를 채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많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따라 붙기 때문이다. 그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건축가란 “형태(Form) 대신에 채택된 양식(Style)을 만드는”<sup>41)</sup>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축가는 건축 작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앞서 언급한 도시와의 관계, 장소성, 역사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건축 비평 행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형태에 대하여 멋이 있고 없고 식의 단순한 관점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도시, 형태, 주거를 연관시키면서 사람이 사는 방식을 새롭게 하고 건축을 새롭게 활용하거나 새롭게 보는 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르노디는 주장한다. 설령 결과물이 예술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완성되기까지의 조건과 제작과정, 작업결과와 참여한 사람들 등을 진솔한 결과물로서 검토하여야 함을 르노디는 강조하였다.

각기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 도시, 형태, 주거를 하나로 연관시켜 연구하는 르노디의 방식은 그로 하여금 독창적인 형태와 복합적 특성을 건축으로 승화시키는데 기본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복합적 조직체의 배합

르노디는 건축작품의 독창성이란 한사람의 천재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상관없는 타 분야의 사실적인 내용과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복합적인 성격이 기본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복합성이란 절대 장애요소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진화의 징조로서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르노디는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는 복합적이고 이 복합성은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점차 치밀하게 구성된 구조체와 구성조직에서 유래한다”<sup>42)</sup>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차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는 복합적 조직체로서의 도시를 건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이나, 문제를 단순화한 기존의 실무 수준으로는 건축가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르노디의 설명에 의하면 병치(juxtaposition)하는 방법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며 연구를 통하여 배합(combinaison)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합이란 도시의 기능을 주거, 업무, 위락, 교통으로 분리한 아테네 헌장 이론<sup>43)</sup> 방식에 의하여 몇 가지를 혼합시킨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혼합(melange)과 배합(combinaison)은 다른 것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가방 속에 통조림과 나이프, 포크를 넣었다고 이것들이 배합되었다거나 조화된 조직을 구성했다고는 절대로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조각가가 조화로운 배합물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때라는 의미는, 이것은 단순히 재료를 함께 나열시켜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르노디는 단순히 재료를 함께 나열시켜두는 방식을 비판하며 도시계획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공하는 듯한 아테네 헌장의 극도로 단순한 입장을 연상시킨다고 평하였다. 르노디는 아테네 헌장의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면서 네 개의 단순 기능 설정으로 인하여 대규모 집합주거의 탄생을 초래했고 빠리의 라 데팡스 같은 업무 중심지를 만들려고 기존의 도시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도시를 정비하게 하였던 것을 비판하였다.<sup>44)</sup>

결국 르노디 작업의 복합적인 형태는 이 논문에서 여러차례 인용한 그의 유일한 저서 “복합성의 논리La Logique de la Complexite”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듯이 도시, 형태, 주거를 하나로 연관시키는 종합적 접근 방법에 바탕을 두고 복합적으로 완성된 요소들을 배합시키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료 건축가 르네 가이우스페의 증언에 의하면 르노디의 건축대학 학생시절 스승인 마르셀 룩 교수의 영향이 있었는데 룩 교수는 설계 크리틱 때마다 학생들에게 “가방 속에 정돈하여 담아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였다고 한다.<sup>45)</sup> 복합적인 요소들을 어지럽게 나열하지 말고 정리 정돈하여 배합(combinaison)수준에 이르도록 만들어올 것을 요구한 스승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 4. 맺음말

##### 1960년대에 광풍처럼 몰려 온 대규모 도시주거의 획일

43) 도시의 기능을 주거,업무,위락,교통으로 분리하여 zoning별로 독립된 다른 기능을 부여하여 특성화된 기능으로 발전시키는 도시계획 방식에 관한 이론이다.

44) 르노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하여”AA (L'Architecture d'Aujourd'hui 46호, 32쪽, 1969년10월~11월

45) 두 건축가는 모두 마르셀 룩 교수의 아틀리에 소속이었으며 룩 교수의 크리틱 발언 “Faites moi une valise” 표현을 항상 들곤 하였다. 건축가 르네 가이우스페와의 인터뷰 내용.

41) 건축가는 형태를 만드는 능동적인 작업을 해야하며 양식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42) 건축과 구조, 장르노디의 프랑스 건축대상 수상기념 회견, 1976년1월

ISSN 1588-1142(Print)

적이고 반복적인 생산 기법에 근본적으로 저항하여 장 르노디는 기존 도시 주거 생산 방식과 전혀 다른 디자인 철학과 방법을 갖고 독창적인 도시 집합주거를 완성하였다. 그의 디자인 철학과 방법을 연구한 결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라미드 형태를 최대한 종합적(Synthese Maximum)으로 완성하려는 철학적 목표를 갖고서 경사지의 구릉 모양 같은 주거건축 형태를 창안하였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방식을 타파하고 집합주거 각 세대마다 똑같은 평면이 하나도 없도록 개성있는 도시주거 설계 방법을 활용하면서 혁신적인 집합주거의 평면과 공간을 실현하였다. 초기 계획단계에서 함께 작업한 구조 엔지니어로부터 합리적이지 못한 평면에 대한 반발이 거세었고 사각격자 그리드 구조 시스템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평면이라는 비평이 있었지만 확실성을 거부한 건축가 르노디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완성하였다.<sup>46)</sup> 합리적인 건축은 직각 체계로 반듯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진 일부 비평가는 별 모양의 불규칙적 테라스 건축 형태를 경박한 장난감에 비유하며 비하<sup>47)</sup>하기도 하였지만 르노디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며 자신의 건축철학을 도시주거에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주거 내부의 공간 계획부터 테라스를 비롯한 공용 공간을 너그럽게 제공하고 도시외부 공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바로크 건축의 도시외부공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켰다.

둘째, 주민들 간 상호 소통과 주거 외부 공간의 도시 사회적 소통 철학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넓은 테라스 공간과 주민 공용 공간의 적극 도입 방법을 통하여 도시와 도시주거의 소통 역할, 주민간 소통 역할을 가능케 하였다. 이에 따른 공식적 공로로 잔느 아세뜨 건물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설계 및 시공을 인정받아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20세기 건축물 유산으로 지정<sup>48)</sup> 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주민들로부터 더욱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sup>49)</sup> 도시주거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이

도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sup>50)</sup>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언론의 평가를 통해서 재확인 받았다. 즉 1981년 르노디가 작고한 후 1993년에 열린 르노디 추모 전시회를 맞아 언론의 재조명이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인정받았다.<sup>51)</sup>

셋째, 상기 성과를 이룩한 잔느 아세뜨의 신축 예산이 일반 서민주거의 예산범위에서 이루어진 사실<sup>52)</sup>은 르노디의 뛰어난 건축가로서의 철학과 방법이 옳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준다. 아울러 현대 대도시 집합주거의 무표정한 외관과 소통을 모르는 주민들의 공동생활 공간 양산에 익숙해진 건축가들과 행정 당국자들에게 교훈이 된 르노디의 도시 집합주거 디자인 철학과 방법을 전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1960-70년대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프랑스의 도시 집합주거 디자인 경향을 이해하고, 동시에 장 르노디의 디자인 철학과 방법을 통해 도시집합주거 건축의 진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40년이 지난 오늘날 자연 노후해 가는 현대 건축 문화재인 르노디의 잔느아세뜨의 보수와 유지 관리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sup>53)</sup>로 남게 되었다.

References

1. AA, l'Architecture d'Aujourd'hui, N.220, 1982.4
2. AA, l'Architecture d'Aujourd'hui, N.285, 1993.2

러 축제 분위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입주 1년이 지난 후 월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하여 천차만별인 각자의 실내공간을 상호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50) 주민들 중에는 주민간 상호 교류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주거의 조용한 분위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이웃이 있는 경우에 르노디의 건축 개념이 안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르노디가 설계한 도시주거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라고 판단한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전원 생활 하듯이 야외 만찬을 나눌 테라스 공간이 되기도 하고 보고 싶지 않은 이웃이 있다면 이웃과 면한 테라스에 화초 울타리를 간단하게 설치하면 자신만의 녹지공간이 될 수 있다.

51) “르노디가 서민주거에 전한 품위있는 편지” Sylvie STEINBACH, L'Humanite, 1993.2.10.

52) 르네 가이우스떼와의 인터뷰(1999.06.30.)

53) 잔느아세뜨 건물의 노출 콘크리트 건축 수준은 1970년대 수준이라 2012년 수준으로 볼 때 넓은 기술의 허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현대식 대리석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나친 성형은 안 하지만 도 못한 것이다. 또한 잔느아세뜨 저층 상업 시설의 침체로 인한 재건축 방향 설정은 복합적 도시 집합주거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향후 전망에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관심을 기울여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46) 건축과 구조, 장 르노디의 프랑스 건축대상 수상기념 회견, 1976년1월

47) 르네 가이우스떼와의 인터뷰(1999.06.30.)

48) 프레데릭 미테랑, 프랑스 문화부장관사, “20세기 건축의 가치 부여”, 1945~1975 Une histoire de l'Habitat, Beaux Arts Editions, 2010.12

49) 1975년 잔느 아세뜨 건물의 완공식이 끝난 후 주민들이 처음 건물을 방문할 때부터 계단 엘리베이터 코어를 이용하기보다 본능적으로 테라스를 따라 올라가는 계단으로 몰려갔었다고 한다. 또한 잔느아세뜨가 완공된 후 한동안은 68혁명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잔느아세뜨 외부 공용 테라스에서는 수시로 주민들간 파티 모임이 열



3. Cyrille Poy, Jean Renaudie, l'Humanite, 2002.11.02
4. Jean Renaudie, 「La logique de la complexite」, Institut Francais d'Architecture, Edizioni Carte Segrete, 1992
5. Jean Renaudie」, Institut Francais d'Architecture, Edizioni Carte Segrete, 1993
6. Henri Lefebvre, AUTOGESTION, Fillip Editions, 2009
7. Monique ELEB, "VU DE L'INTERIEUR 1945-2010", Archibook+Sautereau Editeur, 2010
8. Plan Construction, CONSTRUIRE POUR HABITER, L'EQUERRE, 1981
9. Sodedat 93, Institut Francais d'Architecture, Edizioni Carte Segrete, 1992
10. Scalbert Irene, 「A RIGHT TO DIFFERENCE The Architecture of Jean Renaudie」, Pamela Johnston, 2004
11. Sylvie Steinebach, Renaudie a donne des lettres de noblesse au logement social, l'Humanite, 1993.02.10
12. Technique & Architecture, N.339, 1981.12, p.108-116
13. Une Histoire de l'Habitat 1945-1975, 40 Ensembles "PATRIMOINE du XXe SIECLE", Beaux Arts Editions
14. Utopies realisees, Somogy editions d'art, Paris, 2009

접수(2012. 6. 15)

수정(1차: 2012. 8. 3, 2차: 2012. 8. 20)

게재확정(2012. 8. 30)